



## 아프리카의 지붕 킬리만자로산

킬리만자로산은 마치 붓질이 서툰 어린아이가 그려낸 풍경화인 듯 드넓은 탄자니아 북부 대초원 가운데 무심히 솟아 있다. 거대한 산체(山體)는 좌우 대칭을 이루며 빠른 봉우리는 새하얀 눈으로 덮여 있다. 해발 5895미터의 이 휴화산은 아프리카 대륙을 대표하는 최고봉으로 '7대륙 최고봉' 명단에도 속해 있다. 적도 부근에 있는 산이면서도 만년설에 덮여 있는 게 이색적이다. 산 아래 산재한 수목 지대에서는 아카시아잎을 입에 넣고 우물거리는 기린과 코끼리를 볼 수 있다. 탄자니아 사람들의 국민적 자부심인 킬리만자로산을 방문한 이들은 정상에 이르는 기나긴 등산로를 따라가며 자신의 패기를 시험하거나 인류의 보금자리였던 이 산의 압도적인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글 모건 트림블

## THE ROOF OF AFRICA

Mount Kilimanjaro rises unexpectedly from the savanna of northern Tanzania as if a child drew it — massive, symmetrical and crowned by a jagged cap of white snow. This dormant volcano, which soars to a dizzying 5,895m, is Africa's contribution to the "seven summits" checklist of the highest point on each continent. Kilimanjaro's frozen peak feels out of place so near the equator, but in the tree-dotted plains below, giraffes and elephants don't pay the anomaly any notice; they're too busy chomping mouthfuls of fine acacia leaves. For Tanzanians, Kilimanjaro is a point of national pride, and the mountain's charms draw visitors from around the world who come to test their mettle on the long hike to the peak or simply to enjoy the iconic landscape. By Morgan Trimble



숲에서 사막으로  
킬리만자로산을 오르다 보면 고도에 따라 각기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된다. 열대 우림을 이루던 숲은 위로  
올라갈수록 황야와 이탄지(泥炭地), 고산 사막으로  
변하다가 마침내 정상에 다다르면 여기저기 들어  
흘어진 황량한 풍경을 드러낸다. 숲에는 아프리카  
고유 수종인 '엔탄드로프라마 엑스켈숨' 사이로  
선사 시대부터 있었던 듯한 나무고사리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발 디디는 곳마다 지옥류, 이끼가  
기득하고, 우거진 녹음 사이로 색색의 꽃이 피어 있다.

#### FROM FOREST TO DESERT

A journey up Kilimanjaro is a trek through different worlds. The plant life transforms with increasing elevation from rain forest, to heath and moorlands, to alpine desert and, finally, to the barren, rock-strewn summit. In the forests, prehistoric-looking tree ferns thrive amid gargantuan *Entandrophragma excelsum* trees. Every surface drips with lichens and mosses, and brightly colored blooms pop amid thousands of shades of green.





정상을 향하여  
킬리만자로산 등반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다.  
단지 적당한 체력과 고도에 적응하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 매년 수만 명이 등정에 도전하고 다수가  
성공한다. 얼마 전 등반에 성공한 86세의 여성이  
그 희열을 함으로 표현한 동영상 이 화제가 올랐다.  
휴가를 맞아 킬리만자로산을 찾은 일반인부터 유명인  
장애인까지, 많은 이들이 등정의 기쁨을 누렸다.

#### TREK TO THE TOP

Climbing Kilimanjaro requires no technical skill, just moderate fitness and adaptation to the altitude. Each year, tens of thousands of visitors attempt the climb, and many succeed. An 86-year-old woman recently danced on the peak, thrilled to join a list of summiteers that includes celebrities, people who overcame disabilities and everyday adventurers who achieved a remarkable feat on vacation.





#### 눈 덮인 봉우리

킬리만자로 최고봉인 '우후루'는 스와힐리어로 '자유'라는 뜻이다. 정상에 오른 이들 역시 육체적인 성취감이 가져다준 희열과 함께 고산 지대의 산소 부족 현상이 더해져 일종의 '해빙감' 비슷한 기분에 휩싸인다고 한다. 킬리만자로 산정에 서서 파란 빙하 위로 솟아오르는 주홍빛 일출을 보는 것보다 벅찬 경험이 있을까. 단, 빙하가 점점 녹아 지금은 예전 크기의 10분의 1 정도만 남아 있다. 과학자들은 2040년 즈음 빙하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 전망한다.

© Namachi / Kazuyoshi / Getty Images

#### SNOW PEAK

Freedom. It's what Uhuru, Kilimanjaro's highest peak, means in Swahili. It's also what climbers feel at the summit — the euphoria of an impressive physical achievement mixed with the effects of the high elevation and exhaustion on the brain. There's nothing grander than gazing out over Kilimanjaro's blue-glowing glaciers against a fiery orange sunrise. Over the past century, however, the glaciers have steadily receded; they now cover just a tenth of their former extent. By 2040, scientists predict, they'll be gone entirely.



#### 킬리만자로산 사람들

붉은 망토를 걸친 마사이족 목동들은 킬리만자로 북부 지역을 타전 삼아 수백 년간 가축을 길러왔다. 야생 동물과 공존하는 것으로 유명한 마사이족의 땅 중 일부는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지에 속한다. 킬리만자로 남부는 차가족의 영토다. 정착민인 차가족은 농사꾼으로 원만한 경사지에서 커피를 경작하며 산다. 두 부족은 한때 서로 적대사하기도 했으나, 오늘날에는 출신 배경과 관계없이 킬리만자로에서 공존하며 살아간다.

© Riccardo la Harper / Getty Images

#### PEOPLE OF THE MOUNTAIN

Maasai herders with their characteristic red blankets tend livestock in the northern shadow of Kilimanjaro, as they've done for hundreds of years. The Maasai are renowned for coexisting peacefully with wildlife, and their lands are home to some of Africa's finest safari destinations. South of the mountain is Chagga territory. More sedentary than the Maasai, the Chagga people are agriculturalists, growing coffee on Kilimanjaro's slopes. The tribes were once adversaries, but today, people from all backgrounds work together on the mountain.